

은행나무 아래 가을축제

완주 옥련암, 내비둬 콘서트

아름드리 노란 은행나무가 도량 입구에 줄지어서 불자들을 맞는 완주 옥련암(주지 일감)은 11월 3일 작은 가을 축제를 열었다.

'은행나무 멋 있는 날'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평화바람 한마당, 참석자들이 일감 스님과 함께 평화바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비둬 콘서트 '그대로 행복하기' , 평화기원 예불, 평화바람 소원지 달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평화바람 한마당은 대금밴드 '이창선과 대금스타일' 의 연주, 이은미 관장의 조선세법 검도시연, 재즈밴드 김영주와 퀘텟의 음악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도량 한 가운데 '평화 꽃피어라' 는 깃발이 휘날리는 대형솟대가 세워졌으며 참석자들은 전통 한지로 제작된 평화의 등에 각자 평화에 대한 생각과 희망을 적은 소원지를 달았다.

일감 스님은 "대중과 함께 평화에 대해 말하고 고민하면서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음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음악회가 진행되는 동안 도량 곳곳에서는 이승호 작가의 사진이 전시됐고, 일감 스님은 대담집 〈그대로 행복하기〉에 직접 사인을 해 참석자들에게 선물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인니 피해 복구 동참"

봉은사 · 선운사, 지원금 기탁

지난 9월 강진과 쓰나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를 돕기 위한 불교계 자비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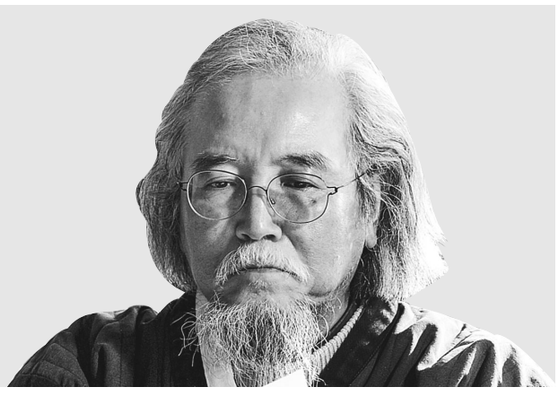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와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11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인도네시아 지진피해지원 등 기금으로 각 3000만, 1335만 원을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에 전달했다.

이사장 원행 스님은 이날 "앞으로도 종단이 직면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며 "종단에서도 사찰과 신도 분들에게 될 수 있는 한 많은 도움을 주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봉은사 측이 위탁한 기금은 인도네시아 피해뿐만 아니라 국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김지원 기자

"논서 '청정도론' 한글로 만나세요"



Interview

〈청정도론〉 완역한 전재성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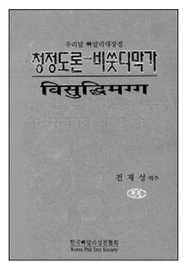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상좌부 불교 난해한 논서

1년 6개월 걸쳐 완전 번역

100여 쪽 해제 · 도표 첨부

3832여 주석으로 이해 도움



"〈청정도론〉은 빠알리 원어 〈비쑤디막가(Visddhimagga)〉로 그 의미는 '청정의 길' 이라는 뜻입니다. 청정은 궁극적으로 '열반' 을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 〈청정도론〉은 결국 '열반의 길' 이라는 말이죠. 이 논서를 통해 많은 대중이 바른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사진 위〉은 11월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정도론〉 완역 발간의 의미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청정도론 · 사진 아래〉은 남인도 출신인 붓다고사가 AD5세기경 마하비하라파의 초청에 스리랑카로 들어와 저술한 논서다. 전 회장의 설명에 따른다면 "〈청정도론〉은 빠알리대장경에 속하지만 빠알리삼장뿐만 아니라 주석서에 이르기까지 가장 방대하고 정교하게 통합된 남방 테라바다 불교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청정도론〉이 쓰인 역사적 계기도 주목할 만하다. 대승과 소승간 일종의 경쟁이 불교 역사상 가장 난해한 논서가 저술되는 연유가 됐기 때문이다.

"붓다고사가 스리랑카에 온 이유는 아쇼카왕의 아들 마힌다 장로의 법맥을 계승한 마하비하라파가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스리랑카는 산스크리트적 대승불교 사조가 유입되면서 테리바다 불교 전통에 위기가 왔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마하비하라파는 붓다고사를 초청해 경 · 율 · 론 삼장뿐만 아니라 고대 싱할리본 주석을 섭렵하게 해 〈청정도론〉을 완성케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붓다고사와 마하비하라파는 정통 테라바다 불교의 기초를 세울 수 있었죠."

〈청정도론〉은 크게 계행과 삼매, 지혜로 나눠지지만 각 부분마다 여러 문제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설명하고 있어 그 양도 방대하다. 색인 포함 1533쪽이 달하는 이 논서를 번역하는 데 전 회장은 약 1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평생을 빠알리 성전을 번역하는 데 매진했던 공력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의 공력은 100여 쪽이 넘는 해제와 〈청정도론〉에 나온 법수들을 정리한 도표, 총 3832개의 주석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노력의 산물은 독자들이 난해한 논서를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된다.

이 같은 〈청정도론〉은 어떤 독자들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전 회장은 조금 더 전문적 수행으로 나아가려는 불자들은 〈청정도론〉을 읽기를 권했다.

"〈청정도론〉은 매우 치밀하고 시스템화된 논서입니다. 고도로 형이상학화된 대승불교적 공사상이나 유식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궁극적 청정에 이르는 우리의 마음을 관통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전문적으로 초기불교 수행하시는 불자들이 읽으면 자신의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불교합창단, 화합 무대 열어

2018 부산불교합창제 성료

각 종단 합창단 9팀 참가

부산불교 합창단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의 무대를 선보였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정임숙)는 11월 5일 부산금정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018 부산불교합창제' 를 개최했다.

합창제는 1부 개회식에서 내빈들의 축사와 환영사 등 인사말이 이어졌으며 2부에서 화려한 화음의 무대를 선보였다.

공연은 동명불원 가람소리합창단, 관음사 환희합창단, 총지종 만다라합창단, 혜원정사 합창단, 삼광사 화엄합창단, 진각종 유가합창단, 미륭사 바라밀합창단,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 범어사 합창단 등 9팀이 찬불가와 자유곡으로 무대를 꾸몄다.



11월 5일 열린 부산불교합창제 무대 모습.

마지막에는 부산불교지휘자 중창단의 특별무대가 열려 박수를 받았고, 부산불교연합합창단과 지휘자가 함께하는 무대로 마무리됐다.

정임숙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장은 "합창제는 불음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법회이자 수행의 결과다"며 "우리 모두의 범음이 온전히 부처님께 공양될 수 있도록 예불을 올리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은 "화엄경에 이르기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 땅에서 끊임없이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다' 고 한다"며 "찬불가는 법석을 여법하게 갖추는 장엄일 뿐 아니라 듣는 이들에게 환희심을 일으키는 법문이다"고 격려했다.

한편, 합창제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부회장 세운 스님, 상임부회장 심산 스님, 진광 정사와 정미영 금정구청장과 왕선자 여성불자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선율로 물든 가을산사"

청도 운문사, 경북도계음악회 개최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11월 3일 대웅보전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도계음악회를 개최했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풍요로운 계절에 경북도계음악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운문사의 아름다운 자연 안에 종자기와 같은 지음으로, 리(理)를 듣고 바로 뜻을 아는 성공적인 음악회가 펼쳐져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반야학술상 이자랑 교수 수상

11월 4일 통도사 반야암서 시상식 열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은 11월 4일 통도사 반야암에서 시상식을 열고 이자랑 교수에게 제8회 반야학술상 저술상을 수여했다. 이자랑 교수는 연구 저서 〈율장의 이념과 한국불교의 정향〉으로 수상했으며, 올해 논문상은 해당자가 없어 선정되지 않았다. 한편, 반야학술상은 불교학 및 불교문화 우수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신성민 기자

걸음으로 실천한 '자비행'

(재)아름다운동행, 걷기 모금행사 '성료'



(재)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원행)은 11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서 '엽서워킹투어-동행, 우리 함께 걸을까' 걷기 모금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아름다운동행 지원단 및 참가자 50여 명은 사찰 순례 및 문화유적지 탐방을 성공리에 마쳤다. 이를 통해 모연된 기금은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의 문화탐방을 위해 전액 사용된다.

김지원 기자

굴셀健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